



TÜV SÜD Korea / 라이너 블록 Reiner Block 대표이사



“한국의 원전산업 해외 진출 적극 도울 것”

시험·검사·인증·기술 컨설팅 분야의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인 TÜV SÜD 그룹의 한국 법인인 TÜV SÜD Korea가 최근 원자력 기기 및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인 (주)GNEC를 인수, 합병하면서 국내 원자력 시장에 성큼 진출하는 한편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이너 블록 사장은 GNEC 인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 기기 및 설계, 교육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관련 기술 지원에 앞장서 국내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국내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중국, 인도 및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원전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향후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TÜV SÜD Korea가 GNEC 인수를 마무리한 시점인 지난 10월 19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여의도 대한생명 63빌딩 12층 TÜV SÜD Korea 사장실에서 라이너 블록 사장을 만났다. 인터뷰 자리에는 이번 GNEC 합병에 큰 역할을 한 김두일 TÜV SÜD 고문이 배석하여 인터뷰를 도왔다.

TÜV SÜD 그룹이 설립된 지 140년이 넘는 걸로 압니다. TÜV SÜD 그룹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TÜV SÜD 그룹은 새로운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인간, 환경,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866년 독일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 당시 최신 기술인 증기 보일러 검사를 시작으로 점차 모든 산업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독일 최대의 기술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독일의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고, 유럽, 미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걸쳐 600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14,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ÜV SÜD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파트너로서, 독일의 우수한 노하우와 정부 규제, 기업 및 시장 동향에 관한 풍부한 관련 지식 및 경험,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중립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ÜV SÜD 그룹의 2008년 매출을 보니 약 14억 유로에 달하더군요. TÜV SÜD 그룹이 세계적인 시험 인증 기관으로 자리잡은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ÜV SÜD 그룹은 별도의 주주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익을 R&D, 엔지니어 교육 및 훈련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관련 지식 및 경험을 계속하여 축적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지요.

이렇듯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이 “Choose certainty. Add value” 라는 TÜV SÜD의 고객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및 시장에서 가장 신뢰 받는 엔지니어링 기반의 인증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TÜV SÜD 그룹의 원자력 분야에 대한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TÜV SÜD의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는 600여명의 엔지니어가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TÜV SÜD의 원자력 에너지 부문은 독일 연방 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일 내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한 정기 검사, 특별 검사, 제3자 인허가, 검사 및 리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제조사들에 기술 컨설팅과 제3자 검사 및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ÜV SÜD는 독일 및 영국의 원자력발전소를 기반으로, 한국,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의 원자력발전소에 자문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시장을 바탕으로 중동, 인도 및 중국 등의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며, 국제 fusion reactor 프로젝트인 ITER 사업에도 제3자 검토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TÜV SÜD Korea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활동을 개시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1992년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1994년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내형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모두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요.

현재 100여명의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 및 전자 제품 관련 인증 및 시험 시장의 리더이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제품 인증 서비스와 경영시스템 인증 서비스에서 산업 검사, 철도, 자동차, 놀이 기구, 발전소,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TÜV SÜD Korea가 한국 시장에 원자력 관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2006년 한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기술 회사인 KOPEC과 MOU를 맺고 안전 해석, EQ, Q&M, 그리고 원전의 계속운전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TÜV SÜD Korea는?

회 사 명	TÜV SÜD Korea Ltd.
최고경영자	라이너 블록 (Reiner Block)
설립 연도	1994년 10월 (1992년 사업 시작)
총매출액	140억원 (2008년)
고용인 수	75명 (2008년)
위 치	서울본사, 부산영업사무소
보유 인정 (Accred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S-ANZ (Joint Accreditation System, Australia & NZ): QMS, EMS, OHSAS • KAB (Korea Accreditation Body) : QMS, EMS • IECQ : HSPM QC 080000 • IECEE CB scheme: CBTL

올려 두산중공업, 한수원 등과도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GNEC를 인수, 합병하셨는데 인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지엔이씨 (GNEC)는 2001년 국내 원자로 설계 전문가(ASME Section III NCA-3255, ASME Section VIII Division 2)들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국내 선도의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설립된 이래 원자로 구조 안전성 관련 연구 개발, 구조 설계 및 해석 기술 용역, 컨설팅 등 많은 전문 기술 업무를 수행해왔지요.

이번 인수를 기해 GNEC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독일 TÜV SÜD 본사의 원자력 에너지 부문과 접목하여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독일의 원자력 산업 관련 기술 및 경험을 한국 시장에 도입하여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TÜV SÜD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원자력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동, 인도, 중국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 국내 산업계와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TÜV SÜD Korea만의 사업 노하우, 혹은 장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독일 본사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ÜV SÜD Korea는 기존의 인증, 검사 서비스에 더하여 독일 본사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엔지니어링 지원으로 독일의 우수한 기술력을 한국 시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 사장님은 지난 1월에 이곳 한국에 부임해왔는데 그간 지켜본 한국 기업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시장의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이 매우 근면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저희 회사를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에 적극 부응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그럴 것입니다.

TÜV SÜD Korea의 '유일한 외국인'인 라이너 블록 사장은 인터뷰 말미에 우리나라 기업인들과의 교류에 대해 묻자, 우리말로 "요즘 한국말 배우고 있습니다."하고 또렷하게 말하고 책상 속에서 한 무더기의 명함을 꺼내 보여주면서 밝게 웃었다. ☺

라이너 블록 사장은 독일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에서 화학공학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2년 TÜV Hessen GmbH 플랜트 안전 담당 PM으로 입사하여 플랜트 안전 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1997년에는 환경, 안전, 경영시스템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어, 순익을 50% 증대시키고,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3485와 EMAS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2009년 1월 TÜV SÜD Korea Ltd.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그는 ㈜지엔이씨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다.